

국문요약

본 연구는 「KOICA 사업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사회조사방법론 적용 방안: ‘아카데미 협력프로그램-성과관리 협력사업’ 운영 프레임워크 구축 및 시범사업 적용」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KOICA-굿네이버스 사업에 대한 시범적 성과관리의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협력적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성과관리대상 사업은 KOICA의 민관협력 사업인 “친환경 적정 기술과 사회적 기업 모델을 통한 몽골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효율 및 대기환경개선사업(이하, 몽골 G-saver 사업)” 으로, 동 사업은 몽골 울란바토르 및 1개의 지방도시(자브항)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사업기간 15개월, 사업비 1,446백만원). 몽골은 대표적인 저온지역으로, 저소득 가구들은 추운 날씨와 비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인해 높은 석탄 사용량 및 연료비 부담, 질병, 공해문제 등 여러 고충에 당면해 있다. 이에 G-saver 사업은 몽골지역에 축열기인 G-saver를 보급하여 게르 거주 가정의 난방효율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주민 건강 향상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몽골 현지의 사회적 기업인 굿쉐어링(Good Sharing)이 현지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서 직접 G-saver를 생산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현지 인력의 고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성과관리 사업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성과관리를 위한 측정 방법과 측정도구 등 연구 디자인을 소개하였다. 둘째, G-saver 제품의 경제적 효과, 건강 효과, 환경 효과, 삶의 질 효과의 측정과 분석결과를 보고하였고, 굿쉐어링 회사의 경영성과를 내부 경영 시스템 및 외부 협업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셋째, 본 연구 결과의 기여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KOICA 민관협력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의 효과들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경영학, 경제학, 의학, 환경공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융합한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성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둘째,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성과관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셋째, 사업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 실험통제집단 연구방법(Randomized Control Trial: RCT)을 적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치밀한 통계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넷째, 성과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있어 설문조사와 계량측정의 방법뿐만 아니라, 일대일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인 자료수집 방법도 함께 활용한 통합적 조사방법론(mixed methods)을 적용하였다.

주요 성과관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 효과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G-saver를 사용함으로써 열효율이 높아져 일일 난방횟수와 석탄 사용량이 감소되었고, 이로써 소비자 가정의 난방비 절감과 가처분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둘째, 건강효과 부분에서는 G-saver를 사용한 집단에서 객담의 감소와 피부자극 증상의 감소가 발견되었다. 이는 G-saver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석탄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석탄연소 시 발생하는 독성 가스와 미세먼지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호흡기 자극과 피부자극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삶의 질 측정 결과, G-saver 보급 전보다 보급 후에 연구대상자들의 건강부분에 관한 삶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 효과의 측정에서는 위성 관측자료의 활용, 지상의 기상관측소 자료의 활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시도해보았으나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며, 게르 실험의 경우 향후 추가적 실험을 통해 결과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G-saver의 생산과 판매, 보급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인 굿웨어링의 경영성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G-saver 사업의 단계별 협업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집행 및 사업평가 단계에서는 기관들 간 협력이 비교적 강하게 이루어졌지만, 사업수요조사와 기획, 사업결정,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협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집행과

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굿네이버스 몽골지부의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현 사업에서 굿네이버스 몽골지부의 정보력과 인력, 타 기관에 대한 호혜성 등이 매개역할에 중요한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관협력 사업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이때 매개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정보력, 인력, 호혜성 등 협업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보다 나은 협력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동 성과관리 사업에서 수행된 것보다 더욱 엄밀한 성과측정과 관리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